

합동전화

로카디파파, 2017 년 2 월 11 일

보고, 자신의 것으로 하고, 실천하기

(차례)

1. 시작 인사
2. 자기 자신을 되찾고, 내어주기: 지네타 마리아폴리 소도시의 젊은이들 (브라질)
3. 프란체스코 교황님을 알현한 EOC
4. 유니스: 정의를 위해 사는 범죄학 (케냐)
5. 사회변화를 가져오는 예술 (코스타리카)
6. 모하메드의 가족: 사랑과 용기 (이탈리아)
7. 롤프 아저씨: 다른 이를 향한 시선 (독일)
8. 끼아라 루빅: 고통 넘어서기
9. 결론

1. 시작 인사

(박수)

라파엘: 이 전세계적인 만남의 시간인 합동전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리아나: 이 순간을 여러분 모두와 함께 건설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마리아나이고, 요가 강사입니다.

라파엘: 저는 라파엘이고 한 비영리 단체의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마리아나는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마리아나: 라파엘은 멕시코인입니다. 우리는 8년 전에 결혼했고 2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합동 전화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수에 (박수) 그리고 루츠 마리아. 우리는 현재 이 곳 카스텔리 로마니에 살고 있습니다.

라파엘: Un saluto especial a Méjico e a todo el continente americano. Hello America!

(박수)

마리아나: Los queremos mucho!

늘 그랬듯이 여러분의 인사와 메시지 혹은 느낌들을 왓츠 00 39 3428730175, 이메일 collegamentoch@focolare.org 혹은 Facebook.com/CollegamentoCH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파엘: 오늘 저녁에는 이곳 로카디 파파 시의 시장과 시청 공무원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그리고 전세계 25 개국에 확산되어 있는 포콜라레 운동의 영속하는 마리아폴리 소도시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대표해 몇 명이 여기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의 도시” 라는 뜻인 마리아폴리, 이 마리아폴리는 트렌토의 산악지역에서 1950년 경 여름에 처음으로 태어났는데, 끼아라와 그의 첫 남녀 동료들 주위에 가족, 젊은이, 수도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서로 간의 사랑” 이라는 유일한 법밖에 없었습니다. 이 법은 노동자, 어린이, 노인 등 모두를 동등하게 해주어.....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휴가들은 끝나곤 했지요.....

해가 가면서 시기와 방법은 달랐지만 세상 곳곳에 “영속하는 마리아폴리 소도시” 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당에 이 소도시들에서 살고 있는 몇 사람이 와있습니다.

여기에 마우로가 있는데, 그는 멕시코의 푸에블라 근교의 아카징고 소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Mauro, que bonito Méjico!

Mauro: De verdad!

라파엘: 마우로, 잘 오셨습니다!

마우로: 감사합니다!

라파엘: 이 소도시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마우로: 아카징고는 약 4만 명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소도시에는 약 40명이 사는데 주변 사람들과 매우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가난이 극심해서 그 가정들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 학교를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는데, 여러 곳에서 도움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 학교에는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중학생까지 약 40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주교님도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라파엘: 마우로 감사합니다.

마우로: 감사합니다. (박수)

마리아나: 이제 아시아로 가 봅시다. ‘나르’ 는, 아시아 전 지역 사람들이나 또 다른 종교인들도 방문하는 필리핀 타가이타이 마리아폴리 소도시에 살고 있지요?

나르: 네 그래요. 우리 소도시의 현실 중 하나가 다른 종교인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일본, 베트남, 미얀마, 태일란드 등지의 불교인 등 많은 타종교인들이 오는데, ‘삶의 대화’ 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끼아라도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우리는 삶의 증거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마리아나: 아름답습니다! 나르, 고맙습니다.

차오, 레나타는 여러 해 동안, 다른 그리스도교인들과 함께 사는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근교의 오토마링 소도시에서 살았지요? 그렇게 함께 사는 것은 어떤가요?

레나타: 그렇습니다. 오토마링에는 두 개의 그리스찬 공동체, 즉 포콜라레 운동과 한 복음교회 형제회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것이 오토마링 소도시의 특징입니다. 약 50년 전에 두 운동이 처음 만났을 때, 양쪽 다 “저 모든이를 하나로” 를 생활말씀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두 운동이 함께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이 종교 개혁 500 주년이 되는데, 두 교회의 축복 아래 태어난 이 소도시는 이 50 년 간의 경험을 통해서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러 교파 주교들 모임을 위한 좋은 토양이 되었고, 이 도시에서 작성된 몇 문서들은 그리스도교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며, 다른 운동들도 참여할 수 있는 대화의 장입니다. 그곳에서 250 개의 운동과 공동체가 네트워크를 이루며 유럽에 하나의 영혼을 불어 넣고자 하는 ‘함께 하는 유럽’ 운동도 시작 되었습니다.

마리아나: 감사합니다, 레나타. (박수)

2. 자기 자신을 되찾고, 내어주기: 지네타 마리아폴리 소도시의 젊은이들 (브라질)

마리아나: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40 km 떨어진 곳에 지네타 소도시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일 치된 세계를 위한 젊은이들 한 그룹이 한 “삶의 학교” 에서 6 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럼 영 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포르투갈어)

마르코스 볼핌 - 리포트: 상파울루에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포콜라레 운동 회원들의 양성을 위한 본부인, 지네타 마리아폴리 소도시 입니다. 약 1 년전부터 일 치된 세계를 위한 젊은이 학교라는 하나의 새로운 경험이 시작 되었습니다. 6 개월 동안 젊은이들이 함께 살면 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라파엘 스트라우스, 독일: 저는 사회 활동분야에서 뭔가 구체적인 일을 하거나 아니면 세계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뚜렷한 생각은 없었어요.

안토니오 네토, 브라질: 제게 있어 가장 큰 도전은 제가 다른 이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살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각자가 자신이 내어 줄 수 있는 것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많은 아픔과 고통으로 점철된 저의 삶 외에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기억나요.

다를레네 볼핌, 인생 조연가: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스토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몇몇 젊은이는 안정된 가정 출신이고, 몇몇은 그렇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의 스토리이지만, 이미 자신들의 상처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있는데, 작업 시간에 젊은이들은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들이 배운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자막: 마아가렛 정원 프로젝트 / 카르모 동네 / 황금 이삭 베이커리

부루나 데 오리베이라, 브라질: 이 프로젝트의 한 젊은이가 제 전공을 알고, 제게 이 마가렛 정원 프로젝트에 관한 한 다큐멘터리 비디오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게해야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고 용기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을 동참시키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제

작업에 대해 설명하고, 그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브라질 TV 뉴스: 상파울루에서 50 Km 떨어진 ‘바르젠클라데 파우리스타’ 에 폭우와 강풍이 불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굴리헤르모 가체리, 브라질: 비가 오는 평범한 날이었으며, 수업 중이었는데 우리가 작업을 하던 동네인 “마가리타 정원” 지역이 침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제게 충격이었으며, 그날은 제게 있어서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날이었습니다.

다를레네 보핀: - 우리는 이 젊은이들이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고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거기 다다를 수 있는 경로를 정하면서 그들 삶의 한 프로젝트를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몇 가지 기술적인 교육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최종 평가 때 가장 흥미로웠던 것 중의 하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토니오 네토: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아무런 전망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목적지가 생겼습니다. 제가 열등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라고 싶습니다.....

라파엘 스트라우스, Fora de Campo: 저는 플로리아노폴리스의 ‘모로(Morro)’ 판자촌 지역에 자원봉사를 갈 것입니다. 저는 그 곳에서 살 텐데, 제게는 분명 매우 강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이곳에서 했던 것만큼 강한 경험을 한 사람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느냐고요? 이 6개월의 학교 동안 배웠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음악과 박수*)

라파엘: Muito obrigado amigos! 감사합니다! (박수)

3. 프란체스코 교황님을 알현한 EOC (바티칸)

라파엘: 재화, 가난, 미래. 이는 지난 2월 4일 바티칸에서 천이백명의 기업인, Eoc의 젊은 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강조했던 3개의 주제입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음악)

스피커 (여): 교황님과 세계 54개국에서 온 약 1200명의 경영인, Eoc의 젊은이,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기쁨이다. Eoc는 끼아라의 영감에 의해 태어난 지 25주년이 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의 빈곤과 불의를 뿌리 뽑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무되고 꽃피어 난 크고 작은 기업체 혹은 비즈니스 네트워크이다.

교황님이 오시기 전에, 첫 영감인 끼아라의 이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지지했던 볼로냐 대학의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가 먼저 발표를 하고, 뒤이어 Eoc가 빛을 본 브라질 그리고 한국, 이태

리와 아르헨티나의 가장 가난한 원주민 사이에서의 이 새 현실의 실현들에 대한 증거가 이어졌다.

박수

루이지노 브루니: 경외하는 교황님, 모든 것에 앞서 “감사 드립니다.”

스피커: 포콜라리노이며 경제학자인 루이지노가 먼저 교황님께, 회칙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도 경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심에 대해 모두의 마음을 담은 환영인사를 드리고, 개인과 기업의 삶에서 가난과 불의에 대적 하는 소명에 대한 답으로 실천한 참석자들의 삶을 소개했다. 그의 말에 이어 플로렌시아, 코르넬리우스, 데레사, 마리아 헬레나가 그들 국가와 전 세계의 가난한 이들의 인사를 교황님께 전했다. 교황님의 간단하고 강력한 말씀은 청중들의 깊은 공감을 가져왔으며, 교황님은 즉시 경제와 나눔 이 두 마디가 합치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셨다.

프란체스코 교황: 현재의 문화는 이 두 말을 완전히 분리시키거나 자주 반대적인 의미로 취급합니다. [...] 여러분의 삶으로 경제와 나눔이 서로 곁에 있을 때 더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당연히 경제도 아름답지만, 나눔도 아름답습니다. 마음의 정신적인 나눔은 재산, 재능, 이익의 나눔이 되면 더욱 더 가득해지기 때문입니다.

박수

스피커: 교황님께서서는 재화를 이상화 하지 않기 위한 ‘이윤의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불의의 피해자들을 돌보는 것에 그치지 않는, 한 ‘경제적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과 무시당하거나 소외 시 되는 사람들이 없는 사회를 건설할 것을 촉구 하셨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 죽이는 경제에 대한 “아니오”가 가난한 이들과 나누고 함께 하며, 이익을, 나눔을 위해 사용하기에 살리는 경제에 대한 “예”가 되기 바랍니다. [...] 여러분이 계속해서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나눌 줄 알고, 가난한 이들이 행복하다고 불리는 다른 한 경제, 하늘나라의 경제의 씨앗, 소금 그리고 누룩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라파엘: 교황님은 죽이는 한 경제에 대한 “아니오”가 살게 해 주는 한 경제에 대한 “네”가 되기 바란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대중매체에도 큰 반향을 가져왔습니다. 거기 참석했던 몇몇 기업인들의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르난도 토르텔리 - Holding Protelli - 쿠리티바, 브라질 (브라질 어)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단지 돈, 소득 만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나누어야 한다고 하셨을 때 정말 멋지셨습니다. 이 것이 최고의 선물이지요! 제 생각에 우리는 지금까지 잘 해온 것 같습니다.

에르네스토 피게레도 - Gestar - 카마구에이, 쿠바 (스페인어) 아름다운 기회였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주의 국가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 사이에 논쟁이 있는 쿠바에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쿠바에서 단지 경제에 뿐만 아니라 사람을 재구성하는데 있어 자극이 되리라 믿습니다.

테레사 간존, 카바얀 은행 - 바탕가스, 필리핀 (영어) 예를 들어 우리와 같은 은행 부문에서 활동하는 이들에게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현 상황은 금융계에서 나눔의 표현이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교황님과 함께 나누는 것과 어느 모로 교황님께서도 이 프로젝트를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스티브 윌리엄 아제우모 - AECAC 책임자 - 야운데, 카메룬 (불어): 교황님께서 자본주의가 사는 박애주의와 나눔의 다른 점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누룩이며, 용기와 겸손 그리고 기쁨을 지니고 더욱 더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베티나 곤잘레스 - 부메랑 여행사-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스페인어): 많은 때에 우리는 시스템이 우리를 좌우한다고 혼동하곤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변화시킬 큰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가난한 이들을 위한 노력, 그들을 우리 기업에 동참시키고, 가난 퇴치를 위해 계속 열심히 일해야 하며,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도전입니다.

코르네일 키밤브와 - 중앙 의료원 이사 - 킨샤샤, 콩고 공화국 (프랑스어): 아프리카는 교황님의 고통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Eoc 를 통해 교황님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일하고자 합니다.

마벨 오르티즈 - 커피숍 - 테구시갈파, 온두라스 (스페인어): 우리는 이 Eoc 의 현실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저의 기업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 것이 제 3 세계인 우리 나라의 가난을 퇴치하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모든 온두라스 의 기업가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마리오 마이아 마토스 - EoC 책임자 - 국제 인큐베이팅 네트워크 - 리스본, 포르투갈 (in 포르투갈어): 무엇보다 하나의 예언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말씀 안에서 Eoc 는 이 시대의 예언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재화와 가난한 이들을 “함께 놓으면” 정말 미래가 있음을 믿게 해줍니다.

존, 줄리에 문델 - Mundell & Associates - 인디애나 폴리스, 미국 (영어)

존: 저희에게, 저희 모든 기업가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었습니다. 혼돈스러운 일터에서 가끔은 어려운 일상의 활동 속에서 오늘 하신 교황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의 보물을 지니는 것과 같습니다.

줄리에: 저희에게, 일은 재화와 관련이 있지만 일은 무엇보다 사랑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박수)

라파엘: 경제학자인 아누크 그레빈도 바티칸에서 교황님과 만났던 이 중요한 모임에 함께 있었지요. 아누크, Eoc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Eoc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기업가는 특별히 어떤 것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아누크 그레빈: 제 생각에 가장 아름다운 정의는 교황님이 내려주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Eoc는 기업의 실행이나 경제의 비전보다는 가난한 이들을, 내어주는 것,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이익과 재화보다는 상호성을 더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Eoc를 살고자 하는 기업인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각자 자신의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끼아라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준 것 중 가장 상징적이고 고유한 것은, 이익을 나누는 것으로 이 것은 단지 누군가 필요로 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목표는 이익이 아니라 모두를 특히 더 필요로 하는 이에게 봉사하는 것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라파엘: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Eoc에게 우선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아누크: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째는 젊은이입니다. 무엇보다 Eoc기업을 만들 프로젝트를 가진 젊은이들 혹은 새로운 기업가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밀받침 해 주는 것 입니다. 젊은이들도 지원하는데 그들은 많은 창의성을 갖고 단지 기업주뿐만 아니라 모두와 관련된 주는 문화를 모두에게 알릴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카메룬의 한 대학에서 젊은이들이 Eoc를그들 주변에 확산시키기 위해 한 클럽을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우선되는 것은 가난에 대한 더 옹호 시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Eoc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박애 정신이나, 우리 모두는 발견해 나가야 할 무한한 부를 지니고 있다는 확신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가난한 자들이며 우리는 한 사람을 경제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축소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Eoc에 무언가 줄 것이 있으며 진심으로 우리는 각자에게 이 가능성을 주기 원합니다. 단지 그에게 부족한 것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닌 그리고 다른 이에게는 부족한 모든 부를 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라파엘: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누크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발전을 지켜보겠습니다. (박수)

4. 유니스: 정의를 위해 사는 범죄학 (케냐)

마리아나: 페이지를 넘겨 케냐의 나이로비로 가서 유니스의 경험을 들어보기로 합시다. 그는 매일 자신의 도시에서 정의를 찾고 되가져가기 위해 사는 한 범죄학자 입니다.

(음악)

Eunice Wanta Ikapel: 나이로비, 범죄 수사 본부:

제 전공이 뭐냐고요? 저는 학위가 두 개 있는데... 첫 전공은 사회학이었어요... 그리고 범죄수사 본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 범죄자들을 대하게 되는데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범죄학 학위를 땀습니다.

매일의 일이 다양한데 많은 힘과 지혜 그리고 지식이 요구 됩니다.

한 남자분이 저의 사무실에 와서 자기 친구가 백삼십만 실링을 훔쳐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고를 접수하고 그의 친구를 잡으러 갔습니다.

(음악)

(...) 제 주위의 수사관들은 그가 돈을 훔쳤으니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사자 두 사람과 얘기를 나누었는데(...) 피의자가 전액을 갚겠다고 했기 때문에 신고자에게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친구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 용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실 피의자는 가정에 어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둘 다 제안을 받아들여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 자는 도둑 맞은 돈을 되돌려 받고, 도둑은 용서를 받아 둘 다 평온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음악)

제가 어디서 이런 힘을 얻냐고요? 포콜라레 공동체로부터 인데요, 거의 매 주말이면 그곳에 가서 나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무엇보다 거의 매일 아침 하느님께 지혜를 청하는데, 하느님께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고 또 제게 그분의 현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

나이로비시는 물론, 케냐 전체에 대한 저의 희망은, 국민들이 범죄가 없고 희망이 있는 도시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 모두가 행복하고 누구나 하는 일이 존중 받는 도시에서 사는 것입니다. (음악)

마리아나: 유니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딸을 낳았다는 소식 들었는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박수)

5. 사회변화를 가져오는 예술(코스타리카)

라파엘: 세계 여행을 계속하며 코스타 리카로 갑시다. 니카라과, 혼두라스, 하이티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국경을 접하고 난민수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 곳에서 티나와 산드로가 자신들의 친구들과 함께 예술을 통해 한 '형제애'의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 준 영상을 통해 알아보시다.

(스페인어)

티나 머그 - 오스트리아 - 화가, 예술 교육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티나 머그 입니다.

산드로 로이아스 바딜라 - 코스타리카 - 그래픽 소통가: 저는 코스타리카의 산드로 로이아스 바딜라 입니다.

티나: 저는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결혼한지 2년 됩니다. 우리는 코스타리카의 수도인 이 곳 산호세에 삽니다.

산드로: 그리고 우리는 예술 디자인과 소통 계에서 일합니다.

티나: 우리 결혼의 목표 중 하나는 단지 한 가정을 형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결합이 하나의 의미를 갖고 더 멀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믿는 것 바로 형제애를 위해 바치고 싶었습니다.

산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일치의 문화를 위해 살았는데 이에 대해 끼아라 루빅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끼아라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F 프로젝트 CR** 이라고 부르는 이 프로젝트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음악)

형제애를 위해 학제간 협력 방법으로 예술을 사회변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합니다. 우리는 국경선을 넘어와 북쪽 국경지대에 묶여있는 난민들에게 초점을 맞춰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생필품을 가져가 돕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 즉 놀이, 춤, (음악) 등 영혼을 채워주는 모든 것들을 가져갑니다.

단지 난민들이 있는 국경 지대뿐만 아니라 국가의 여러 지역민들의 감수성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마리아나 차베스 - 코스타리카 - 인권변호사: 피난을 요청하며 코스타리카에 도착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살바도르,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와 다른 북부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 비해 아주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 이 국제적 보호 선택권을 택한 아이티와 몇몇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피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새로운 상황으로 정부는 이것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거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 텐트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F 프로젝트 CR** 을 시작했습니다.

나일리 고엔 - 베네수엘라 - 전문 댄스: 시작 하자면, 저도 난민의 처지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도 피난을 갔기때문에 현재의 그들 상태에 개인적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를 일으키는데 있어 열린 수로 역할을 한, 보편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예술적 면이 제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음악)

스피커: 우리가 **F 프로젝트** 를 시작했던 2016년 10월부터 도움과 예술을 가지고 매달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비비아나 로페츠 - 코스타리카 - 사회 사업가: 매우 아름다운 사람들을 알게 해주고 나를 바꾸어 놓은 경험담들을 알게 해준 창문과 같았습니다. 예술적 증거가 보편적인 언어로써 사

람들 사이의 소통을 위한 최상의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티나 머그 - 오스트리아 - 화가, 예술 교육가: 4 개월이 지난 후 가장 아름다웠던 것은 우리가 방문했던 사람들과 봉사자들의 얼굴에서 기쁨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테반 헤르난데즈 - 코스타리카 - 언론인: 우리가 도움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지만 매년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동안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카를로스 아코스타 - 코스타리카 - 사회학자: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단지 좋은 말이나 축원이 아니라 무언가 구체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행하면서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피커: 네트워킹이 핵심인데, 예술, 사회 분야의 다른 기관과 협회 들과의 협력은 F 프로젝트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 주었고 우리가 F 프로젝트 공동체로 자라나게 해 주었어요.

F 프로젝트는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의 연대 덕분에 난민 캠프에 천 개 이상의 나무 받침대를 가져 갈 수 있었는데 허리케인 오토 후에 난민들을 위한 침대가 급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산드로: 우리는 대중매체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캠페인도 시작했는데 이는 이 상황을 널리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드리안 헤르난데스 - 코스타리카 - 사회학과 학생: 이는 전 세계가 살아야 할 경험이며, 이 것을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베로니카 고메즈 - 코스타리카 - 역사학과 학생: F 프로젝트 덕분에 저는 형제애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로드리고 우마나 - 코스타리카 - 학생: 형제애,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는 것 같은 활동은 정말 거대한 것입니다!

티나: 전 세계적으로 살고 있는 두려움의 법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산드로: 결국 우리는 이런 저런 방법으로 자자손손 이민자들의 후예입니다. 같은 행성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형제애는 당연한 말이 되어야 합니다. (박수)

마리아나: 티나, 산드로 그리고 코스타 리카의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6. 모하메드의 가족: 사랑과 용기 (이탈리아)

마리아나: 아직 난민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할 스토리는 한 이태리 가정과 아프리카에서 바지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온 한 젊은이 모하메드에 관한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사랑과 용기로 느끼고 또 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이다.” 이 것은 모하메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프랑코 디 비아제: 과일 먹을 사람? 물 좀 마실래? 여기 있어.

프랑코 디 비아제: 2015년 성탄 날 저는 아프리카에서 바지선을 타고 온 사람들 중의 하나인 모하메드를 알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그를 알게 되었는데 심한 림프종을 앓고 있었고, 완전히 혼자였어요. 우리 가족은 마호메드가 퇴원하자마자 그의 삶의 어려운 순간을 함께 헤쳐갈 수 있도록 우리 집에 그를 맞이하기로 했어요.

그라치엘라 디 비아제: 우리는 그를 정말 우리 아들처럼, 우리가 선택한 아들로 맞아,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식사, 옷 등을 돌봐주었어요. 건강이 회복된 후에는 학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하메드는 신앙심이 아주 깊은 모슬림 신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신앙심이 줄어들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회교 사원에 데려다 주고, 집에는 그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어요.

루카 디 비아제: 처음에는 내 공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하루는 엄마가 내가 바뀐 것을 보고 저에게 오셔서 눈물을 보이시며 “나는 다른 한 사람 때문에 나의 아들을 잃고 싶지는 않다” 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부터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의 선물이며, 아름다운 경험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저와 모하메드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어 서로가 서로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어요.

페데리카 디 비아제: 처음에는 모하메드와 관계를 맺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의 문화에서는 여자 아이들과의 관계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는, 정말 백배의 상과도 같은, 삶의 참된 가치들을 제게 가르쳐 주었어요.

프란체스코 디 비아제: 의사들도 놀라워했고, 제가 옆에 있으면 아이의 상태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밤에도 제가 아이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는데, 그건 정말 예외적인 일이었어요!

루카 디 비아제: 차요 프란체스코, 또 연락해요.

피아노 연주

페데리카 디 비아제: 루카, 방에 가 볼래?

루카 디 비아제: 프란체스코, 이것 좀 보세요!

프랑코 디 비아제: 모하메드는 한 쪽 시력을 거의 잃어갔지만 결코 낙담하지 않았어요. 페이스 북에 마지막에 올린 그의 글이에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사랑과 용기로 느끼고 또 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이다.”

그라치엘라 디 비아제: 최근에 우리는 모하메드의 엄마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이었어요. 우리에게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그의 가족이에요. 나는 자연적인 생명을 그에게 주었지만, 여러분은 참된 생명을 주었어요.”

페데리카와 그라치엘라 노래

(노래) 중에 흐르는 자막

모하메드 성당 장례식
모하메드 회교 사원 장례식
(박수)

마리아나: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온 마음 다해 비아제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7. **롤프 아저씨: 다른 이를 향한 시선 (독일)**

라파엘: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또한 새로운 길을 향해, 어떤 때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길을 향해 뛰어 오르도록 해주는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새로운 친구들에게 “아저씨” 가 된 롤프의 스토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음악-자막: 슈델부르크 - 독일)

롤프 (이태리어) 저는 여기서 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는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어요. 결혼 후 몇 년 안되어 자연 유산이 되어, 한 아이를 입양하려 했는데 입양하기에는 제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린이 일시 입양을 제안했어요. 6년 동안 38명의 아이들을 돌봤는데, 4개월, 5개월, 길게는 11개월을 우리와 함께 지냈습니다.

(음악)

롤프: 하루는 아침에 제가 집을 나섰을 때 마리아는 아직 건강했습니다. 제가 일어났을 때 마리아가 아직 누워있어서 “잘 잤어?” 하고 물었더니 “네, 그런데 좀 추워요” 라고 하기에 아직 따뜻한 제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요?” 라고 해서 “당연히 알지.” 라고 하며 키스를 한 후 집을 나섰어요. 오후에 직장 일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마리아는 부엌에서 무릎을 꿇은 채 있었어요. “마리아 뭐하고 있어?” 하고 물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폐 색전증’ 이 왔는데 너무 늦게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음악)

롤프: 그 이후의 날들은 정말 힘들었어요. 마치 제가 딛고 서 있던 바닥의 토대가 사라져 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어떻게 한 사람이 반생밖에 안되는 4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깊은 위기를 맞았어요. 신앙적으로도 말입니다. 이 십자가를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자신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결국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으셨고. 아무 것도 이해 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내 영을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하며 성부께 자신을 맡겼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주님, 당신이 정말 계신다면 저를 도와 주십시오.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 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절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정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악)

롤프: 제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마리아의 장례식 후에 그와 함께 미얀마에 갈 것을 제안했어요. 저는 미얀마가 무엇인지조차 몰랐어요. 그는 그 시기에 미얀마에서 태어나고 있던 포콜라레 운동을 도와주러 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좀 생각을 해 본 후 제 스스로에게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 일지도 모르지, 단지 나 자신과 내 문제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그 친구와 함께 떠났습니다.

(음악)

롤프: 그곳 사람들이 제게 감동을 주었어요. 단순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었어요.

카를로스 신부님과의 만남은 제 삶을 바꾸어 놓았어요. 신부님께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물었는데, 그 분은 제게 3800 명이 사는 한 마을의 본당신부인데, 먼 지역에서 와서 그 마을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원도 운영한다고 했어요. 120 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120 명의 아이들을 돌보는데 하루에 얼마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신부님은 식량과 의복, 약, 육성회비, 휘발유, 전기 발전기 등을 계산하기 시작하더니, “25 유로” 라고 답하셨어요. 저는 “120 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비용이 25 유로라고요? 말도 안돼요. 뭔가 잘 못 계산하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정말 그렇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저의 경제에 대한 시각을,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았어요.

(음악)

롤프: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제 친구, 친척, 지인들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한 사람 또 한 사람씩 제게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여기 일주일 분이 있어요.” 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여기 이틀 분이 있어요.” 또 다른 이는 한 달 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모아 그들에게 보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인 한 절친한 친구가 제게 “롤프, 이렇게 돈을 모금하면 하나의 협회를 만드는 것이 좋을 거야!”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협회를 만들었어요. 우리의 도움으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들 주위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책임감을 갖게 해주려고 노력해요. 마리아의 죽음 후에 저는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제 삶을 맡으셔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주위의 것들을 보지 못했었는데 마리아로부터 주변에 대해 넓은 시각을 가질 것을 배웠고 계속해서 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다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는 여행도 마리아가 동행해 주고 있음을 느껴요. 저는 수호 천사가 있음을 [감정이 복받쳐 잠시 침묵] 네, 누군가 나를 보고 있음을 느낍니다.

(노래)

자막: 수년간 ‘*마리아 슈레겔 협회*’는 미얀마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식량 공급과 소액-대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금년에도 600 명을 도왔는데, 특히 여성과 아동들이다.

(박수)

마리아나: 당신의 삶에 우리를 동참시켜주신 룰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의 고통을 우리의 것으로 느끼고 행동하게 밀어주는 우리 주변을 향한 이런 넓은 시선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스토리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보게 될 끼아라의 녹음을 선택하게끔 도와 주었습니다.

8. 끼아라 루빅: 고통 넘어서기

마리아나: 1995년 5월 7일, 엘리가 읽은 질문에 대해 끼아라가 해준 답을 보기로 하겠습니까.

엘리: “[...]나는 이 운동을 통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내어 줄 때 일치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 주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잃는 노고가 따르지만, 내어 주는 것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기쁨 중 가장 큰 기쁨입니다. [...]”

끼아라가 자주 고통에 대해, 버림받은 예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끼아라가 말하는 고통은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 나 자신을 잃는 순간에 느끼는 고통과 같은 것 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묻게 됩니다. 만일 그 두 가지 고통이 다른 것이라면, 내가 신자는 아니지만 끼아라가 말하는 그 고통을 사랑할 수 있는지요?”

끼아라: 레오날도는 우리 운동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하는군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어요. 어떤 때는 이질감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성의 일면인 버림받은 예수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용어를 사용해야 해요.

레오날도는 자신을 비우면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했지요. 이것은 일치의 기술이에요. 다른 이와 하나 되고 그를 이해하며 일치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해요. 옳은 방법이예요.

그런데 이 것이 우리가 버림받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버림받은 예수를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성인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모른다” 고 아주 분명히 말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크리스찬 신앙의

요약이에요.

우리는 다른 상황에서도 그분을 사랑하고자 해요. 그분을 닮은 형제들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요. 예수님은 버림받았다고 느끼셨어요.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을 만날 때 고아들을 만날 때 그들을 사랑해요. 예수님도 고아처럼 느꼈는데 아버지를 가까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분리됨을 느꼈어요. 우리는 가정, 문화, 민족, 인종 사이 등의 분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하러 그곳으로 가요. 그곳에 버림받은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우리는 버림받은 예수를 형제들 안에서 발견해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고통 안에서 그분을 알아보아요. 어떤 때 배신당하고, 사랑 받지 못하고, 박해받았다고 느끼고 실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 위에서 이 모든 고통을 받으셨어요. [...] 하늘에서 오셨지만 이 땅에서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통을 끌어안으며 그 고통 안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느 모로 당신이 제안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께 제 자신을 바쳤으니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그분께 바쳐 드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그 순간에 “하느님 뜻”을 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투신해요. 하느님 뜻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이렇게 할 때 보통은 이런 고통들이 사라지게 되고 더 이상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커다란 분리 속에서도 그분을 발견해요. 예를 들면 교회들 사이의 분리 안에서예요. 그래서 성공회 신자, 개혁신자, 루터교 신자, 정교회 신자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형제가 되었어요. 우리 운동 안에는 다른 교회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또 다른 형태의 분리가 있어요. 타종교 사이의 분리에요. 우리는 그들과 다름을 느껴요. 불교 신자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힌두교 신자는 크리스찬도 불교 신자도 아니고 회교 신자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분리 안에서 그분의 모습을 알아보아요. 그래서 용기를 잃고 뒤로 물러서기 보다는 그분께 대한 사랑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그들과 대화를 해요. 언제나 그들과 일치 시켜 주는 그 무언가를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예요.

타종교인들이 사용하며 우리의 복음에도 있는 구절이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해주기 바라는 것을 그들에게 해 주시오” 라는 것이예요. 이것은 모든 종교에서 사용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이를 기초로 타종교인들과도 강한 일치를 이룰 수 있어요.

우리는 레오날도가 말하듯이 형제를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자신을 비우는 데에서, 개인적인 고통 안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분리 안에서 곧 종교적, 인간적, 사회적 분리 안에서, 정당들 사이의 분리 안에서 버림받은 예수를 알아보아요. 서로를 해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대화 함으로써 화해 하도록 하는 것이예요.

레오날도 알아들었어요? [...]

(박수)

9. 결론

엠마우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묵상에 대해 끼아라께 다시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보여준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본 모든 것은 끼아라와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따른 이들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다른 이의 고통에 하나 하게 해주고, 많은 때에 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게 해주는 고통에 대한 사랑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이 합동전화에서 힘을 얻어 출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다른 모든 이의 고통 안에서 그분을 찾으려 갑시다. 그 분을 바라보고, 그 고통을 우리의 것으로 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이것을 축원합니다, 차오!

라파엘: 엠마우스 감사합니다!

마리아나: 엠마우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라파엘: 이제 끝에 이르렀습니다. 이 합동전화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약속은 4월 22일, 이태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입니다. 차오!

마리아나: Ciao, adios!